

성지 순례 '그 길을 따라 걷다' 체험수기

## 땅에서 해야 할 일

오송성당 유영갑 피델리스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성기원 순례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24일 최양업 신부 신시도 체류지를 걸어서 방문했습니다. 신시도는 새만금 방조제로 육지와 연결된 섬입니다. 1847년 8월 10일 최양업 부제와 메스트르 신부와 같이 귀국하려고 프랑스 군함을 타고 왔습니다. 이 섬 근처 풀등에 좌초되어 오도가도 못하다가 9월 12일에 영국 군함을 타고 상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한달간 신시도에서 프랑스 군인들과 함께 야영하였습니다. 순례길은 그 야영장소를 찾아가는 길 이었습니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새만금 홍보관을 출발해서 신시도를 거쳐 군산시 비응항까지 32km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 5분부터 새만금 방조제를 걷기 시작하여 신시도에 9시 도착했고 신시도를 12시 30분에 출발해서 비응항에 오후 4시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전라북도 서해안 일대에 호우 경보가 내렸고 밤새도록 천둥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새벽녘에 비는 그쳤고 낮은 구름이 해안을 덮었습니다. 시계가 짧아 몇 백 미터 앞이 보이지 않는 허연 공간 속으로 걸어가는 길이 었습니다.

박해시대에 부안군 변산반도에는 믿음 깊었던 교우촌이 여럿 있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충청도 교우들이 배 타고 피신하여 숨어살며 참 신앙을 전했던 곳 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변산반도 곰소 만의 까치댕이였고 숨어서 신앙생활 했던 마을에는 만석공소가 있습니다. 또 지금 부안군 하서면 등용 공소는 김대건 신부 집안인 김해김씨 성인공파 김씨들이 세운 교우촌이었습니다. 이들 교우촌이 신시도 건너편이었으니 조선인 사제가 바다 건너 섬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테고 온 동네가 기쁨과 기대에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변산에 살았다면 신시도에 와 계시는 조선인 사제를 뵈러 가는 길이 어땠을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성사를 받으려면 참회예절이 먼저였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제 교만함을 벌하소서.”

“제 부족함을 놔둔 채 얼굴에 첩판 깔고 나대지 않도록 따끔하게 벌을 내리소서.”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좀 배웠으면 더 배우려는 모습으로 학문에 다가가야 했을 것입니다. 좀 알면 지식을 나누면서 정진하는 모습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세상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진중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상, 종교, 풍습에 관대해야 내 생각도 존중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할 말 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지식도, 교양도, 품격도, 인간관계의 유연함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조용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은 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교만은 가진 것때문에 오기 쉽습니다. 권력, 지식, 돈, 권위, 명예 등을 가지면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버리는 것 또한 교만하지 않는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신앙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난을 바라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가진 것을 버릴 수 있게 해주소서.”

“탐욕, 욕망, 인정욕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 자신까지 버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가난한 삶, 물질과 시간을 나누는 삶, 가난한 교회. 가난은 믿음을 진실되게 만듭니다. 가난하면 이웃 돕기가 쉬워집니다. 훌륭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없는 이를 돕느라 가진 것 내주고 가난해진 교회.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은 그 자체만으로 마음을 헝클어 놓습니다. 돈의 논리와 자본주의의 걸치레 때문에 박해시대 정신이 다시 처형당했습니다. 교회는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마음에 세우는 것인데 … 남몰래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이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또 기도를 바쳤습니다.

“낮은 자 되도록 도우소서.”

“가장 더럽고 치사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태어나셨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도 도망자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 형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당신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속세에서 비참했어도 다른 이의 위로가 되었으니 그 삶이 더 없이 고귀했습니다. 높은 곳에서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되어 같이 가는 삶은 낮은 길로 가는 시작일 것입니다. 제 중학교 동창 이야기입니다. 연세대 토목과를 졸업하고 리비아에서 큰 돈을 벌며 부자가 되었던 친구는 리비아 사막에서 돌아오더니 목사가 되어 서울역 노숙자들과 같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숙자 숙소에 불 지르고 도망가버린 사람을 용서하며 빗더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또 과테말라의 고아

원에서 아이들에게 치받치면서도 참고 돌보는 봉사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살았으면 했습니다.

...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을 반복하며 새만금 방조제 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해당화 꽃이 진 자리에 빨간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갈게 한 마리가 발밑을 오르르 지나갔습니다.

누구나 태어나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최양업 신부 시성기원 순례길을 시간 순서로 보면 탄생지 청양 다락골 새터에서 시작하여 묘지가 있는 배론 성지까지 여정이었습니다. 일생을 열 여섯 마당으로 정리하여 안내 책자에 적혀 있었습니다. 중간에 부모 관련 성지를 들르고 생전에 다니셨던 교우촌들이 있었습니다. 신시도에서 머물렀던 일은 박해의 고향 땅 조선에서의 사목활동 준비였습니다. 탄압의 서슬이 어떤 것인지 사제가 되어 현장에서 부딪혀 본 곳 이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조차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에 맞닥뜨려서 남은 일생 동안 숨어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걸어 다니셨습니다.

땀 흘리며 걸어 다녀야 제대로 순례가 되는 것은 신심 약한 저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차 타고 가서 고개 숙여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고 묵주기도를 하며 몇 군데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는 고난의 시간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눈 감고 고난을 상상하며 바치는 정도라면 굳이 순례에 나서지 않고 오송 성당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고통스러울 때 숨어다니며 사목하셨던 최양업 신부님의 고난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다녀온 국내외 순례길은 도보여행이었습니다. 오송 성당에서 다락골까지 사흘 걸려 걸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송 성당에서 배티 성지까지 왕복 닳새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만금 방조제 길 32km를 걸었습니다. 피곤하여 진이 빠지면 묵주기도에 잡념이 끼어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차 타고 다니면 성지 관광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여행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 다 놔두고 훌가분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길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단절된 길을 걷는 순례는 오롯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신시도 광장에 도착해서 울타리 너머에 있는 체재지 표지판을 바라보며 이곳 포함 열여섯 곳의 성지 순례를 마감했습니다. 풀이 우거지고 표지판이 땅에 떨어져 방치된 성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가난한 모습이 최양업 신부 관련 성지에 더 어울려 보였습니다. 그분은 가난했던 목자였습니다.



신시도를 떠나 군산 비응항에 가까워졌습니다. 바다는 거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쓰러져 누우셨을 때는 찾아 가야할 교우촌이 마냥 마음에 걸리셨을 것입니다. 성사를 주어야 할 양 떼가 기다리는데 ...

만나 뵈었다면 성사를 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일은 하느님이 알아서 하실 거요.

겸손하고 가난하게 사세요.

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온 힘을 다 하세요.

그게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후 해가 서해 바다에 기울어 물결에 찬란하게 반사되었습니다.